

금연 지원예산 12배 늘려...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부착 추진

보건복지부 내년 청소년 흡연 예방 등 1475억원 사용 금연정책 지속...남성 흡연을 42%→28% 낮추기 목표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하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갑 인상과 병행해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였다.

이번에 경고그림은 예산수습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 증진법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논의한 대로 올해 안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77개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담배규제기본협약)를 비준해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해야 하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해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에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이미 공감했고, 합의처리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만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담뱃세 인상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계속 요구해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다.

증가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올해 113억원에서 내년 1475억원으로 총 1362억원 증가(1205% 증가)한다.

늘어난 재원을 통해 청소년 흡연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증가한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통해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금연홍보 확대, 금연정책기반 확충과 함께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담배가격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종합적인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8%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년부터는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공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식당에 금연구역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PC방 등 전면 금연

공공이용시설 흡연석도 없애

내년 1월1일 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공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일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이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8만 곳이었던 금연

음식점은 60만곳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소나 흡연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법 행위 단속에 각 지자체의 금연지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 도입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흡연석을 설치해 운영중인 곳은 관련 시설을 철거할 필요는 없지만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업주는 필요한 경우 흡연만 할

수 있는 공간인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유리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식물 섭취를 허용할 수 없다.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의 조기 정착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지자체와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물을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와 동시에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공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도 일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 담뱃갑 경고 메시지 수준 세계 110위

FCTC 협약 서명 9년 지나도록 경고 그림 표기 의무 안지켜

흡연 피해를 담은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삭제됐는데,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 메시지 수준은 세계 11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압협회 CCS는 지난 9월 발간한 '담뱃갑 경고 메시지 : 국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198개국의 담뱃갑 경고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CCS는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 여부와 경고 그림 크기, 그리고 경고 그림의 최소 크기를 범으로 규정하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담뱃갑 경고 메시지 수준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우간다, 일본, 이스라엘 등 22개국과 공동으로 110위에 올랐다. 이같은 순위는 지난 2012년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집계된 97위에서 13계단 아래로 내려선 것이다. 북한은 올해 기준으로 144위, 2012년에는 134위였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를 통해 협약 당사국들로 하여금 담뱃갑 면적 50% 이상을 경고 메시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메시지 내용은 경고 문구보다는 경고 그림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메시지는 주기적으로 새로 교체하고, '라이트'나 '마일드'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는 단어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협약 당사국은 2014년 7월 현재 모두 세계 179개 나라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FCTC 협약에 서명한 이래 2005년 협약 발효로 2008년부터 담뱃갑 경고 메시지 국제 협약을 국내법으로 이행할 의무를 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FCTC 비준 후 9년이 지난 지금도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를 이행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반면 담뱃갑에 경고 그림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CCS 조사 결과 2014년 현재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 국가는 전세계 모두 77개국으로, 2012년에 비해 22개국 늘었다. 담뱃갑 경고 그림 표기 국가는 지난 2001년만 해도 캐나다 한 곳에 그쳤지만 15년 사이 70개국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태국의 경우 담뱃갑 면적 85%를 경고 그림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시행해 CCS가 집계한 경고 메시지 순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경고 그림이 담뱃갑 면적 50%를 넘도록 강제한 국가는 43개국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 그림 담뱃갑 표기 법안이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매년 폐기됐었고 본회의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비록 본회의에서 건강증진법 경고 그림 표기 조항이 삭제됐지만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향후 추가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김대성기자 bigkim@

“금연구역 전자담배도 피우다 걸리면 10만원 과태료”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서 면적과 상관없이 전국 60만 개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금연구역 제도와 관련된 문답풀이.

- 금연구역에서 전자 담배는 피워도 되나.
 - ▲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에 따라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앞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일정 조건을 갖춘 흡연실이 설치됐다면 이곳에

■ 금연구역 확대 문답풀이

밀폐된 공간 흡연실 설치 가능
소규모 음식점 유예기간 없어

서 흡연이 가능하다.
- 흡연실은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 기존의 흡연석과는 어떻게 다른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담배 연기가 흡연실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PC방 흡연실에는 PC가 있어서는 안 되고 커피

전문점, 음식점 흡연실에는 탁자를 설치할 수 없다.

-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흡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없다.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 유예기간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며 업주는 필요한 경우 흡연석이 아니라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업주는 흡연실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부터는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 소규모 음식점 전면 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따로 없다.

▲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소형 음식점 금연구역 적용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연 구역 정책을 지켜야 한다. /연합뉴스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원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우편 KORAIL 한국관광공사
광주광역시 서구 동원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12월 24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남이섬·춘천

시간	일	정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06:27	가평역	도착 후 출발
07:00	남이섬/김유정 문학촌/춘천 소양강댐/춘천 명동 먹거리 자유관광	
16:18	춘천역	출발
22:14	광주역	도착

성인 85,000원~ 소아 80,000원~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정동진 새해일출 (무궁화호)

시간	일	정
22:0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06:53	정동진역	도착 후 출발
07:00	정동진일출/천국동굴/추암출대바위/목호항어시집 자유관광	
15:30	동해역	출발
22:00	광주송정역	도착

성인/청소년 115,000원~ 소아 83,000원~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시간	일	정
21:0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23:24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04:30	낙산사일출/휴휴임/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18:56	서대전역	출발
22:00	광주역	도착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

1월 8일, 15일, 29일 **1박2일 여행**
우리의 땅 대마도 **목요일 출발**

요일	시간	일	정
(목)	05:00	광주	집결지 집결 후 출발
1/8	09:30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출발
1/15	10:40	한국전망대/미우다하/원통사/에보시타케 전망대/와타즈미 신사 관광 후 호텔로 이동	
1/29	16:00	이완용매곡비/수선사/덕해옹주결혼 병축비/조선통신사비/고려문	
(목)	18:10	대마도 이즈하라항	출발
	18:10	부산	도착 후 광주로 출발

광주출발조건 20명이상 / 1인 249,000원
부산출발조건 2명이상 / 1인 199,000원